

“6·15 선언은 5·18 정신 계승”

DJ 특별연설 “협상 아닌 대화하러 방북” 개막식·축하공연·환영 연회...뜨거운 열기

6·15 공동선언 발표 6돌을 기념하는 ‘6·15 민족 통일대축전’이 14일 평화와 인연, 통일의 도시 광주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후 8시부터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은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통일의 염원을 모아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당사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참석, 특별연설을 해 주목을 받았다. 남·북·해의 대표단을 비롯 광주시민 등 참석자들은 지방에서는 처음 열리는 통일축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5·18 광주정신’과 6·15 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통일 한반도’를 만들자는 의지를 다졌다.

▷개막식=6·15축전 행사위 상임대회장인 백낙청 남측 민간대표단장은 이날 개막사에서 “분단 체제의 상처와 아픔을 역사적으로 상징하는 광주

에서 민족공동행사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다”면서 “이번 축제를 계기로 겨레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분명히 천명, 통일의 초석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J 특별연설=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념사는 크게 ▲6·15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남북통일 방안 ▲자신의 방북 의미 등으로 요약된다. 김 전 대통령은 우선 “6·15 남북정상회담은 민족자결을 결의하고 민족의 화해합력을 합의한 뜻 깊은 사건”이라며 “6·15 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은 민주·평화·통일이라는 5·18 광주정신을 계승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6·15 선언의 근간을 5·18 정신에서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대목이었다.

그는 특히 통일문제와 관련, “한반도 분단은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이 자의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라고 진단한 뒤 “독일식의 흡수통일, 베트남식의 무력통일도 바라지 않는다”며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교류협력 하다가 이만하면 됐다고 합의될 때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지론인 3단계 통일론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이달말에 있을 방북과 관련 “이번 방문은 개인적으로 협상이 아닌 대화를 하러 가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남북간의 평화교류협력을 거쳐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동북아시아 4대국 사이에서 민족자주를 지켜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산과 목포, 개성과 평양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고 파리와 런던까지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할 것인가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일 위원장과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해 흥분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며 “생명이 다할 때까지 민족의 평화와 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축하연설=남측 당국대표단 단장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분단과 병적으로 얼룩진 민족의 역사를 바로 잡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어나가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며 “6·15 공동선언에는 소모적 대결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후순에 계까지 분단된 한반도를 물려주는 안된다는 역사인식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개막 전후 축하공연=개막 전 축하공연에는 남측 노래대 ‘우리나라’ 주도로 ‘오 통일 코리아’ 노래배우기와 꼭지잡댄스가 펼쳐졌다. 또 개막사와 주요 인사들의 축사에 이어 벌어진 축하공연은 북측 통일음악단, 해외측 금강산 가극단, 남측 공연단 순으로 이뤄졌다. 남측에서는 어린이합창단, 가수 김원준, 가수 인순이, 윤도현 밴드 등이 출연해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공연 마지막에는 모든 출연자가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다.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에 온 북측 대표단 일행이 14일 통일 의지를 다지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개막식장인 광주 월드컵경기장에 입장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감오농민전쟁서 5·18항쟁까지 광주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다”

김영대 북측 당국대표단장

김영대 북측 당국대표단장과 우리측 당국 대표단장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주된 대화 소재는 ‘광주’였다.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차 광주에 온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장은 14일 무등파크호텔에서 이 장관의 환영을 받고 광주를 소재로 환담을 나눴다.

김 단장은 “북쪽에서는 광주를 역사적으로 잘 알고있다”고 말했다.

반 외세, 반 봉건, 감오농민전쟁과 광주학생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광주의 역할에 대한 지식도 풀어놓으며 이번 축전이 광주에서 열리게 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장관은 “광주는 민족혼과 민족정신의 고향인 측면이 있다”며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예로부터 예향으로 불린 이곳의 문화유산도 보고 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단장 외에도 북측 대표단의 5·18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이곳을 찾은 대표단의 대부분은 ‘광주’와 ‘5·18’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 “‘광주 정신’이 조국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바람도 빼놓지 않았다. 한 북측 취재진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왼쪽)과 김영대 북측 당국 대표단장이 14일 오후 숙소인 광주 무등파크호텔에 들어서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가 남측의 민주화 역사에 기여한 바를 잘 알고 있다”며 일제 학생운동 때부터 5·18까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공항에서 만난 통일음악단 단원은 “광주는 남측에서 반미 정서가 가장 심한 곳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北 대표단 백남순·故김용순 아들 눈길

(북 외무상) (前 대남담당 비서)

백룡천·김성씨

6·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 대표단에 북한내 외교 및 대남통인 백남순 외무상의 아들과 고(故) 김용순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의 아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행사 관계자들이 따르면 북측 당국 대표단으로 이날 광주를 방문한 백룡천 내각사무국 부장은 백 외무상의 3남이며, 민간 대표단의 일원으로 온 김성씨는 김 비서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962년생으로 알려진

백 부장은 북측 당국 대표단의 단장과 자문위원을 제외한 대표 5명의 명단 가운데 제일 위에 올라 있어 상당한 위치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백 부장은 평양에서 열린 작년 6.15축전 때도 북측 당국 대표단으로 참석했으며, 지금까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당국 간 협의 등에 주로 참석한 대남 경험 일꾼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 사망한 김 비서의 아들인 김씨는 1965년생으로, 평양의 국어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 외문학부 영어과를 나와 유창한 영어

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현재 직함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조선반핵평화위원회 서기장 직함을 갖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 김 비서가 한때 몸담았던 대외문화연락위원회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김씨는 2004년 5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아시아 에너지안보 워크숍에 북측이 비정부 대외협력 창구로 설립한 ‘평양국제 새기술 경제 정보센터’(PIINTEC)의 서기장 직함을 달고 참가한 적이 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남북교역 새로운 활기 불어넣어 주길”

대북 무역상 오 완씨의 통일대축전에 거는 기대

“광주 6·15 통일대축전이 성황리에 개최돼 통일을 앞당기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라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활동중인 광주 출신 대북 무역상 오 완(56)씨는 14일부터 6·15 공동선언 6주년을 기념하는 통일대축전이 ‘민주·평화·인권’의 도시인 광주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못내 상기된 표정이었다.

지난 2005년 3월부터 북한과의 농수산물 교역을 위해 1년 반 가깝도록 단둥에서 지내고 있는 오 씨는 “광주가 이번 대축전을 잘 치러내 남북교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통일을 한 발짝 앞당겨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중국과 북한 변경무역지역인 단둥의 중요 교역로인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를 찾아 광주 통일대축전 개최에 대한 소회를 밝힌 그는 “남북교역은 모두를 잘 살게 해주는 일인

만큼 규모를 더욱 확대해 서로 운택해지는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특히 오 씨는 민주화 성지인 고향 광주에서 통일을 위한 큰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에 주변 사람들부터 “역시 광주답다”는 찬사를 듣고 한껏 고무된 표정이었다.

단둥은 전체 남북교역 물자의 70%가 드나드는 요충지. 전체 인구 240만여명의 단둥에는 상주하는 무역인과 관광객 등 하루 4천여 명의 한국인이 활동하는 곳이다. 또 중국 쪽에서 압록강 바로 건너 편으로 북한 신의주 동포들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눈에 들어와 감회가 남다른 지역이다. 또 중국과 북한간 물자가 오가는 중조우의교 옆으로는 한국전쟁 당시 허리가 두 동강난 압록강 철교의 뼈대가 그대로 드러나있어 다시금 민족의 비애를 곱씹게 해주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거듭 광주 통일대축전의 성공을 기원한 오씨는 이처럼 비중이 큰 단둥



지역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바쁜 사업 중에도 6년 전 창설된 ‘재중국 단둥한국인회’ 부회장직도 맡고 있는 오 씨는 “통일의 가교가 될 단둥에 대한 관심이 아직 너무 낫다”고 안타까워 한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힘을 모아 현지 거주민 자녀를 위해 기틀을 갖춘 학교를 세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주고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통일의 주춧돌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시 바빠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한인회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단둥(중국)=박지영 기자 juni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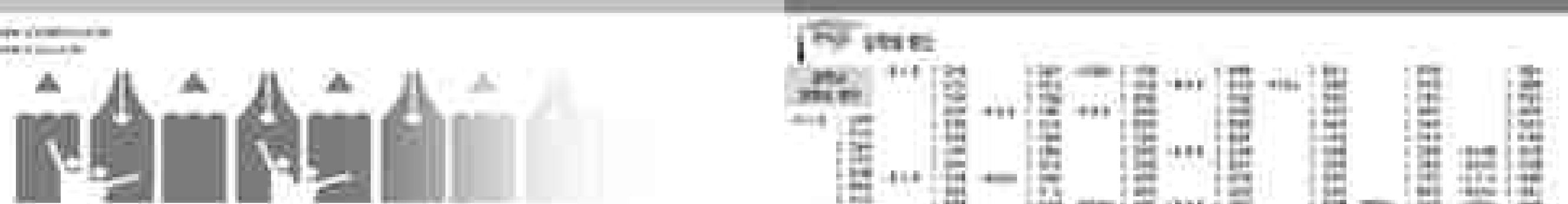
DJ 수의·옥중편지 등 컨벤션센터 기증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소장하고 있던 수의(囚衣)와 옥중편지 등을 자신의 기념공간이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 기증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14일 “김 전 대통령이 김대중홀에 전시하도록 수의와 옥중편지, 독서용 안경, 돌보기 등 30여점을 최근 보내왔다”며 기증품을 공개했다.

센터에 기증한 소장품은 지난 82년 7월 광주항쟁 배후 조종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뒤 청주교도소 수감 중 옥중에서 입었던 상·하 수의 한벌과 독서용 안경, 돌보기, 성경

책, 목포상고 졸업앨범 등이다. 특히 부인 이희호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 중 추위를 이기려 직접 뜨개질해서 보낸 털옷 상·하의와 털 양말도 함께 보냈다. 이밖에 청와대가 기증한 김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사용했던 한식과 중식 식기세트, 가족들에게 보낸 친필 옥중서신 20여점도 공개했다. /채희종기자 chae@



제11회 GS칼텍스 장학금 수여식

올해도 385명까지 수혜를 안받어 계속됩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다는 기원은 일변으로 열거해
총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다는 기원은 일변으로 열거해
총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다는 기원은 일변으로 열거해

- 일시 : 2006년 6월 15일 (금) 오후 2시
- 장소 : GS칼텍스 여주종합빌딩 4층 대강당
- 참석할 지급인원 : 총 385명
- 참석할 지급대상 : 총 385명

